

#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에 관한 연구\*

- 조선 중기 여류 문인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ontent and Composition of Digital Character Archive in Works and Subjects: Female Writers in the mid of the Joseon Dynasty

김 희 숙 (Hee-Sook Kim)\*\*

장 우 권 (Woo-Kwon Chang)\*\*\*

### 목 차

- |              |                     |
|--------------|---------------------|
| 1. 서론        | 5. 작품·주제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
| 2. 이론적 배경    | 콘텐츠와 구성             |
| 3. 인물의 선정    | 6. 결론 및 제언          |
| 4. 생애와 작품 분석 |                     |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 중기 여류 문인 중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그리고 송덕봉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고찰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인물선정 이유를 기반으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생애를 분석한다. 셋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등이 남긴 작품과 이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나타난 글들을 통해 작품·주제를 분석한다. 넷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그 구성을 제시한다.

### ABSTRACT

The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archive of works and subjects digital figures for works by Shin Saimdang, Heo Nanseolheon and Song Deokbong among female writers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To this end, first,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preceding study by studying literature. Second, based on the reason for the character selection, the life of Shin Saimdang, Song Deokbong, and Heo Nanseolhun are analyzed. Third, the works and themes are analyzed through the writings left by Shin Saimdang, Song Deokbong, and Heo Nanseolheon, as well as by various researchers on them. Fourth, it presents the contents and composition of the archive of digital figures in works and subjects with the focus of Shin Saimdang, Song Deokbong and Henan Seolheon.

키워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조선 중기 여류문인,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Shin Saimdang, Song Deokbong, Heo Nanseolheon, Women's literary in the mid of the Joseon Dynasty, Digital character archive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anulse3@hanmail.net / ISNI 0000 0004 6053 2383)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k1961@jnu.ac.kr / ISNI 0000 0004 6437 5303)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0년 1월 29일 최초심사일자: 2020년 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2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145-174, 202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145>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구성원의 일환인 개인은 각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몇 겹의 사회 테두리 안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까닭에 각각의 삶은 그 당시 개인이 살았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 평범한 삶일지라도 그 만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 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 중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거나 반추할 수 있는 자료들 또는 사장되거나 분실의 우려가 있는 귀한 자료들은 더욱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보존하고 공유하여 후손들에게 널리 전하는 문화유산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 인물은 거의 모두 남성 위주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롤 모델을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성 인물을 되도록 많이 발굴하여,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조선은 일반적으로 전기(1392-1506), 중기(1506-1637), 후기(1637-1897)로 구분되며, 신사임당(1504-1551), 황진이(?-?),<sup>1)</sup> 송덕봉(1521-1578), 허난설헌(1563-1589), 이매창(1573-1610), 이옥봉(?-?)<sup>2)</sup> 등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여류문인이다. 이들은 거의 동시대를 살면서 작

품을 쓰고 후세까지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굵직한 문인들이다.

그 첫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조선 중기 여류 문인 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영웅 내지 폄하되어 본 모습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시집을 지녔지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송덕봉의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구성 방안을 모색하여 서로 연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일반적인 양반가 문인의 삶의 궤적을 있는 그대로 간략히 조명한 뒤에 작품 기록을 수집하여 이를 검색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분류 및 배치를 시도한다. 그리하여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아카이브 콘텐츠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조선 중기 여류 문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그 구성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적 고찰에 의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둘째, 인물 선정을 기반으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생애를 조사하여 분석한다.

셋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등이 남긴 작품과 이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나타

1) 생몰연도는 알 수 없지만 조선 중기 서경덕과의 관계를 통해 생존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2) 조선중기(선조) 옥천 군수 이봉의 서녀로, 허난설헌과 함께 중국에까지 알려진 시인이다.

난 글들을 통해 작품·주제를 분석한다.

넷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중심으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그 구성을 제시한다.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작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구성을 위한 생애사는 간략히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고 작품을 링크시켜 제시하고자 한다.

### 1.3 선행 연구

과학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에 따라 선행 연구의 주제도 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 순으로 인물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메뉴스크립트 관리만으로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록관에 소장된 개인기록물들을 활동에 따라 정리한 다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정리 방안을 모색한 연구와(최영주 2005),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은화 2009).

김혜림(2010)은 개인 아카이브의 유형을 작품·주제형, 특정기간형, 생애·활동형으로 나눈 다음, 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사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 기록을 검색도구를 사용하여 연결시켰다. 윤정훈(2012)은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스토리 자원 아카이브즈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민지은(2015)은 지역 역사인물 아카이브 필요성에 이어 수집된 지역인물의 자료를 정리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최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

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글이 나오고 있다. 박선희(2013)는 소장처별로 리드파일을 작성한 다음 파악된 기록을 활동영역별로 연계시켜서 1차적 자료와 함께 2차적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길태(2017)는 한 분야에서 활동 또는 활동했던 특정 인물을 사례로 특정한 인물 관련 기록 소장처와 연계하여 분류한 주제를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인물 아카이브 설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구축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한 인물을 지정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사례를 보여준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선행 연구이다.

신사임당에 대해서는 훌륭한 자녀를 길러낸 어머니, 현모양처 등 그 시대의 전형적인 어머니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많았다(손인수 1986; 박영숙 2016). 반면 박세영(2012)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임당의 모습은 문학가나 예술가로서의 면모보다 율곡의 어머니, 현모양처로서의 모습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였다(유현숙 2011). 또 다른 시각으로 신사임당은 오해받는 여인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후세대 역사학자들과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 허상일 수 있다고 하였다(윤금순 2014).

송덕봉에 대해서는 남편 미암 유희춘(1513-1577)이 기록한 『미암일기』에 따르면 부인인 송덕봉의 시 38수를 모아 시집을 제작해 주었다(유희춘 2004; 辛未(선조 4년, 1571년) 4월 11日). 이렇듯 송덕봉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시집을 지녔던 시인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분실되어 전해지지 않는 까닭에 다른 여류 문인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다행스럽게 『미암 일기』 부록에 송덕봉의 시 25수와 수필 3편이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최근에 송덕봉의 시를 연구하거나 다른 문인들과 견주어 연구되는 글들이 나오고 있다(정창권 2002; 정창권 2003; 정창권, 유희춘 2003; 문희순 2011; 송덕봉 2012; 송제용 2012; 이성임 2012; 한성금 2015).

허난설헌은 하나의 연구사를 이를 정도로 발표된 글이 많았다. 허난설헌과 김성립의 금슬이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라고 했으나(김명희 1999), 문벌은 좋았지만 보잘 것 없는 남편 김성립으로 인해 불행한 시집살이를 했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전경원 1993).

허난설헌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는 이수광, 신희, 김시양, 전겸익, 오명제, 김만중, 이덕무 등은 표절설을 사실화하였고, 명나라 시선집에 수록된 작품은 표절설과 함께 위작설까지 등장하였다(김현미 2017). 반면 황현(1855-1910)은 “초당가문의 세 그루 보배로운 나무 중에서 제일의 신선재주는 경변에게 돌아갔네.”라고 허난설헌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연구도 있었다(이숙인 2014).

시류의 흐름에 따라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보는 시각이 변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각이 평행하고, 송덕봉은 남편인 미암의 시각 또는 미암에 비추어 송덕봉을 연구한 글이 제법 있었다. 이것이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생애를 좌우로 치우침 없이 조명하여 그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는 인물 아카이브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 여성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은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였기에 그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서만이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물 아카이브는 개인 기념박물관과는 달리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므로 김혜림(2010)이 분류해 놓은 인물 아카이브 유형 중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인물 아카이브 개념 및 특징

아카이브(archive)의 사전적 의미는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으로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이다. 즉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모아놓은 것임과 동시에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기술하여 보관·보존하는 장소로 기록물 또는 기록 보관소, 기록물 보관소, 기록 보존소, 공문서관 등 역사적 기록물들을 모아둔 곳이다(민지은 2015).

인물 아카이브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모든 자료와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간 내지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 아카이브는 인물이 수행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서 생산해 낸 기록의 집합체이므로 인물이 남긴 기록물의 수집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그 구성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인물아카이브의 유형과 그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이 개인의 특징에 따라 수집 대상의 차이를 기반으로 작품·주제형, 특정기간형, 생애·활동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김혜림 2010).

또한 인물 아카이브를 구성은 주요 주체에 따라 그 유형을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임진희 2013).

따라서 인물 아카이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활용 분야는 다음 <표 3>과 같다.

## 2.2 인물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작품 연구

이 글에서는 활용된 연구방법은 박선희(2013)의 생애사 연구방법을 응용하여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그 구성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이루어졌다.

인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아카이브 대상 인물에 대한 전(全) 생애의 고찰이다. 구성 인물의 생애사 연구가 잘 수행 되어야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물 아카이브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에 시대의 한계에 간혀

<표 1> 인물 아카이브 수집 범위와 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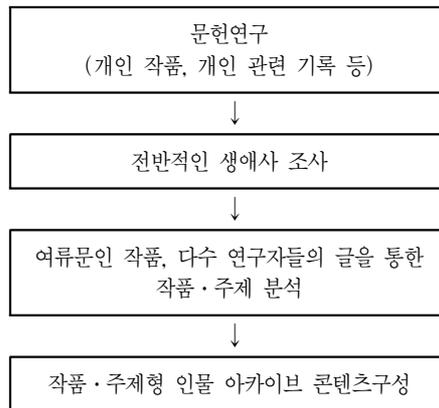
유형	특징	사례
작품·주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으로 유명해진 인물</li> <li>• 주된 수집 범위가 해당 작품 컬렉션과 더불어 사적인 기록과 연구 기록을 수집, 보존</li> <li>• 해당 작품이 속해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찰스 슬츠 박물관 연구자 센터</li> <li>- 중국의 루쉰 기념관</li> </ul>
특정기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기간에 대한 주어진 지위와 관련된 인물</li> <li>•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된 인물</li> <li>• 특정 기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개인 기록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보존,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대통령도서관</li> <li>- 호주의 에미마보기록</li> <li>- United Nations office at Genova</li> </ul>
생애·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全) 생애가 중요한 인물</li> <li>• 해당 인물의 전체적인 삶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li> <li>•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컬렉션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의 루이스리엘</li> <li>- 미국 US-Park 시스템</li> </ul>

<표 2> 인물 아카이브 구축 대상

유형	주요 주체	구축 대상
일상연구형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관</li> <li>• 연구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를 기록화하기 위해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의거하여 다수의 평범한 개인들의 기록을 수집</li> <li>• 중앙 집중적인 저장소에 저장</li> <li>• 사회 발전 단계나 동시대 역사적 가치에 따라 분류하고 해석</li> </ul>
유명인 기념형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li> <li>• 단체</li> <li>• 개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노력과 업적, 전환점을 보여줄 기록을 수집</li> <li>• 후속세대에 교훈적, 감동적 가치</li> <li>• 교육콘텐츠로 활용</li> </ul>
일반인 개인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자신</li> <li>•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필요에 따라 아카이빙</li> <li>• PC, 집, 일터에 분산적으로 소재</li> </ul>

〈표 3〉 인물 아카이브 수집 대상 및 범위와 활용

유형	대상 및 수집 범위	활용
작품·주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 문인 등 작품으로 유명해진 인물</li> <li>• 공적 기록, 사적 기록, 연구 기록물 등 인물의 전(全) 작품 컬렉션</li> <li>• 해당 인물의 기념관 기록관 유적지, 인물이 속한 박물관 사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작품이 속해 있는 학문에 대한 연구 지원</li> <li>- 인물이 속한 향토사 연구 지원</li> <li>- 교육콘텐츠 지원</li> </ul>
특정기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기간 동안 주어진 지위 및 특정 사건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li> <li>• 특정 기간 동안 산출된 공적 자료</li> <li>• 특정 사건과 관련된 공적, 사적 기록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기간 및 사건 연구 지원</li> <li>- 해당 기관의 연대기(표) 작성 지원</li> <li>- 교육콘텐츠 지원</li> </ul>
생애·활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全) 생애가 중요한 인물</li> <li>• 삶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 및 개인 기록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의 전체적인 삶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li> <li>- 후세대에 교훈적, 감동적 가치 교육 자료 활용 지원</li> </ul>



〈그림 1〉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연구 방법

오로지 사적인 활동만을 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그들이 남긴 작품을 위주로 생애사 분석을 진행하고자한다.

### 3. 인물의 선정

디지털 아카이브 콘텐츠 구성을 위한 인물은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 인물 중 지금 이 시대가 여러 면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일반인은 여성의 대표격으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들의 삶에 대한 정보와 작품을 직접 접해보았거나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영웅 또는

평하되면서 일반인에게 왜곡된 시선을 심어준 면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통해 조선 중기 시대적·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사회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3대 건국 이념 중 하나인 억불숭유정책은 정치·문화·사상의 지도적 이념으로 유교를 선택하여 사회와 정치의 모든 질서를 유교적인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셋째, 조선 중기 사회적, 정치적 이념 아래에서 양반가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자아실현을 위해 어떻게 발전해 나아갔는지 알 수 있다.

넷째, 기존의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각기 다른 부부관계를 통해 올바른 부부상을 정립할 수 있다.

다섯째,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과 개인과 개인을 연계한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해준다.

## 4. 생애와 작품 분석

### 4.1 조선 중기 시대적 배경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이 살았던 16세기는 우리나라 학문의 르네상스라고 표현할 만큼 기라성 같은 수많은 남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인종(1515-1545), 명종(1534-1567), 선조(1552-1608)를 거치는 동안 문인들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학문에서는 성리학의 다양한 이론이 쏟아져 나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였다. 고려 때부터 유입된 성리학은 16세기가 되면서

이기(理氣)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6세기 중반에는 성리학자를 대거 등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조선 개국 당시 여성혁명의 주체 세력은 억불숭유정책으로 조선의 기틀을 세워갔고 그에 따라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남존여비사상이 강조되었지만 고려 때까지 이어오던 사회적 관습 및 의식이 일거에 없어지지는 않고 있었기에 임진왜란 전까지는 남녀 평등한 자녀의 균등 상속제, 처가살이하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 부부의 재산이 따로 관리되는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등이 혼용되어 실시되고 있었다.

남귀여가혼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와서 처가살이를 하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가족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가는 혼인풍습으로 고대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성리학의 발달과 임진년 난을 당한 이후에 점점 사라져갔다.

유학의 발달은 주거 형태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남녀유별이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집을 개조 또는 개축하거나 새로 지으면서 안집과 사랑채를 구별하여 만들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전의 부부가 함께 기거하던 생활 방식에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생활하는 구조로 변해갔다. 이에 남편은 밖으로 나도는 일이 많아졌고, 아내는 안집을 자주 찾아주지 않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한을 유학의 예로 억누르면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외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면서 견뎌냈다.

전통적인 양반가 집안에서 성 차별 없이 능력을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마음껏 공부하면서 자신의 재주를 키울 수 있었던 신사임당, 송덕

봉, 허난설헌은 16세기 시대적 변화 속에서 결혼 후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모습이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만들어 냈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양반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4.2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생애사

### 4.2.1 신사임당 생애사 분석

신사임당의 생애의 기록은 셋째 아들 이이가 쓴 『선비행장』<sup>3)</sup>이 유일하다. 신사임당은 강릉에서 1504년 10월 29일 평산신씨 신명화(1476-1522)와 용인씨 이사온의 딸 사이에서 5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름은 인선, 호는 사임당이다. 사임당은 태교로 이름이 알려진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본받는다라는 의미로 16세 때 스스로 지은 호이며, 이름 대신 호 또는 자를 사용하던 시대였기에 오늘날 이름보다는 사임당으로 굳혀져 일컬어지고 있다.

기억력이 뛰어나 다른 자매들보다 글을 더 빨리 깨우쳤던 신사임당은 1510년 7세 때 아버지가 선물해 준 안견의 〈산수도〉를 모방하며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때 그림을 본 주위 사람들이 극찬할 정도로 신사임당은 그림에 남다른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러한 신사임당의 자질을 지켜주고 아껴줄 남편감을 물색하였고, 이에 지체 높은 가문 중 자신의 집안은 가난하고 딱히 이렇다 내놓을만한 관직이 없는 덕수이씨 이기(1476-1552)<sup>4)</sup>의 조카

이원수를 사위로 정하여 1522년 19세인 신사임당과 혼인을 시켰다.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4남 3녀를 두었다.

이원수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풍습이 혼용되던 시절에 장인의 부탁으로 친정살이를 했다. 그러나 신사임당은 혼인한 당해에 전염병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3년 상을 치룬 뒤 한성으로 올라갔다가 시택 선조의 터전 파주군 울곡리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 여러 해 동안 기거하면서 이따금 강릉으로 내려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을 20여 년간 지속했다. 이후 38세가 되던 1541년에 상경한 이래 시택에서 총부의 역할을 맡아 어려운 살림을 감당했다.

1550년 신사임당이 47세가 되던 해에 이원수는 음서로 수운관관(종5품)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1551년 삼청동 관사로 이사한 신사임당은 이원수가 첫째 아들 번과 셋째 아들 이를 대동하고 평안도로 출장 간 기간 중에 병이 발병하여 2-3일 후인 5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원수는 신사임당 사후 10년 뒤인 1561년에 6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훗날 신사임당과 이원수는 셋째 아들 이이의 공으로 각각 정경부인과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품계를 추증 받았다.

부부 관계에서 인간 신사임당은 참으로 당당하였다. 젊은 시절 신사임당은 남편 이원수에게 과거 시험 대비를 위해 10년 동안 별거를 약속받았으나 이원수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고, 그 대신 당숙인 권력자 이기의 집을 드

3) 『선비행장 先妣行狀』: ‘선비’는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일컫는 호칭이고, ‘행장’은 죽은 이가 평생 살아온 일을 기록한 글이다. 타 기록은 차치하고 신사임당의 생애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이의 기록에 의존하여 분석하였다.

4) 명종 즉위 후 문정왕후 수렴청정 시절에 윤원형과 손잡고 을사사화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나들었다. 급기야 신사임당은 덕망과 여론이 좋지 않은 이기의 집 출입을 금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그 충고를 받아들인 원수는 훗날 이기의 역모에 따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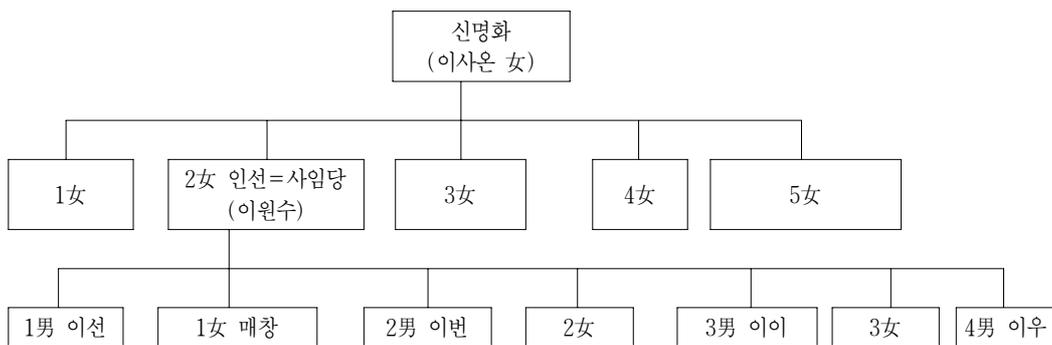
중년에는 남편의 두 집 살림으로 인해 금강산을 다녀올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자녀 교육과 그림 그리는 일과 자수에 열중하였다. 양반가 규수로서 허드렛일을 다닐 수는 없는 입장인지라 가계의 보탬을 위해 본인이 잘 하는 그림과 자수는 생계수단이 되어주었으며 특히 그림은 마음의 위안을 얻는 도피처 역할까지 담당해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말년에 병을 얻은 신사임당은 자신이 죽고 나면 재혼을 금하라고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이원수에게 요구했다. 평소에는 신사임당의 말을 잘 따라주던 이원수는 그 문제만큼은 반론을 펼쳤고, 실제로 이원수는 신사임당 사후 첩과 재혼하였다.<sup>5)</sup>

#### 4.2.2 송덕봉 생애사 분석

송덕봉은 담양 홍주송씨가에 대한 자료와 남편 미암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부부관계를 ‘지공’, ‘지음’으로 표현할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았던 미암은 귀양에서 풀려난 이후부터 사망 전까지 10여 년 동안의 기록을 남긴 『미암일기』에 아내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작품 활동 모습 및 학문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사건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따라서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보다 훨씬 더 풍성한 송덕봉의 말년의 삶의 궤적을 만나 볼 수 있다.

송덕봉은 1521년 12월 20일 담양에서 홍주 송씨 송준과 함안이씨 이인형의 둘째딸 사이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름은 종개(鍾介),<sup>6)</sup> 자는 성중(成仲)이고, 동네 산봉우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덕봉’이라는 호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신사임당 가족 관계도

5) 조선사역사연구소, 『신사임당 뜻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다』, 2015, 아토티, 100. 〈동계만록 東溪漫錄〉을 통해 전해져온다고 기록되었다.

6) 문희순은 유희춘의 후손 유근영의 도움으로 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소재 미암 사당에 모셔져 있는 송덕봉의 신주 함 안에서 “故貞夫人宋氏諱鍾介字成仲神主”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문희순, 2011, 16세기 여성지식인 덕봉 송종개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165).

송덕봉이 교육을 받은 학문 분야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나 영민하고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송덕봉은 다방면으로 학문을 두루 망라하였으며, 특히 역사와 고사 및 작문에는 통달하여 부부가 교환하는 서신이나 시에 손쉽게 자주 인용할 수 있을 정도였다.

송덕봉은 16세가 되던 해에 해남에 기거하던 선산유씨 유계린의 차남 미암 유희춘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학문과 문학에 능하여 호남오현(湖南五賢)으로 칭송되는 미암은 결혼 이듬해인 1537년에 25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고 1538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이른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으며, 송덕봉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다.

정언, 홍문관 수찬, 세자시강원(훗날 인종) 설시를 지낸 미암은 무장현감이 되어 덕봉이 23세(1543) 때 미암과 함께 무장관아에서 지냈다. 이때의 평안함을 나타낸 '우음(偶吟)'시는 서정성을 띄면서도 종장은 이중성을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빼어난 작품이다.

1544년 11월에 인종이 즉위하자 미암은 다시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되어 조정에 나아갔다. 이듬해(1545) 7월에 인종이 승하함에 따라 어린 나이에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어 같은 해 8월에 소윤과 대윤의 경쟁관계에서 미암을 포함한 관료들은 밀지의 부당함을 논박한 죄로 모두 파직되었다. 1547년 덕봉이 27세 때 미암은 '양재역 벽서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제주로 절도안치의 벌을 받았다. 이후 제주는 미암의 고향인 해남이 가깝다는 이유로 함경북도 종성으로 이배되었다.

결혼 후 10여 년의 행복했던 시절을 접고 모

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된 송덕봉은 장남 경림을 미암과 막역한 벗인 광산김씨 하서 김인후(1510-1560)의 여식에게, 딸은 해남윤씨 윤관중에게 혼인을 시켰다. 친정아버지 사후에 담양 집과 전답과 제사를 물려받은 덕봉은 담양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 극진하게 봉양했다. 송덕봉의 덕성에 감동한 시어머니는 미암에게 송덕봉을 크게 칭찬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송덕봉은 예를 다해 장사를 지내고 삼년상을 치른 다음, 유배 중인 미암을 찾아 혈혈단신으로 마천령을 넘어 종성으로 올라갔다. 높은 마천령을 넘으며 송덕봉이 느낀 소회를 읊은 <마천령 상음>은 훗날 성리학자들의 입맛에 맞아 작시인 송덕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성의 부덕을 이야기하는 모범 사례로 사용된다.

압록강 부근 종성에서 송덕봉과 생활하던 미암은 선조 즉위 후 은진으로 재이배 되었다가 1567년 10월에 해배소식과 함께 조정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는 미암이 유배된 지 19년만으로 송덕봉의 나이 47세였다.

이듬해 1568(48세)년 9월에 송덕봉은 서울로 와서 미암과 함께 생활하다가 1569(49세)년 9월 중순에 사직한 미암과 함께 송덕봉의 고향인 담양 태곡리로 내려오지만 그해 11월에 부제학으로 발령이 난 미암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송덕봉은 그 동안 미암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1570년(50세) 11월에 사직하고 내려온 미암을 따라 1571년(51세) 2월에 미암의 고향인 해남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덕봉이 이사 간 당월 11일에 미암은 전라도 감사로 발령이 나고,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도를 순찰하던 중 그해 10월에는 대사헌으로 발령이 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던 송덕봉은 1572년(52세) 따뜻한 봄날에 딸의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미암과 함께 지내면서 부녀자들의 모임이나 왕이 승차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외출도 하고, 틈틈이 부부가 수창시를 읊으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생활을 풍성하게 가꾸어 나갔다.

서울에서 부제학, 대사헌, 이조참판을 역임한 미암은 후학 양성에 뜻을 두고 사직을 청하여 정부인<sup>7)</sup> 송덕봉과 함께 송덕봉의 고향 담양으로 내려왔다. 이후 송덕봉은 논과 밭을 사고 새로운 집을 짓고 손자교육에 열심을 냈다. 틈틈이 부부가 함께 장기를 두고 시를 지어 주고 받으며, 책을 교정하는 미암에게 조언을 해 주면서 편안하고 화목한 노후를 보냈다.

1577년 4월, 송덕봉이 57세 때 즉위 10년이 된 선조는 또다시 미암을 홍문관 부제학으로 발령을 내고 경연에 입번하라는 교지를 내리며, 특승시켜 가선대부로 임명했다. 그동안 벼슬을 몇 번이나 사양하던 미암은 선조의 비상한 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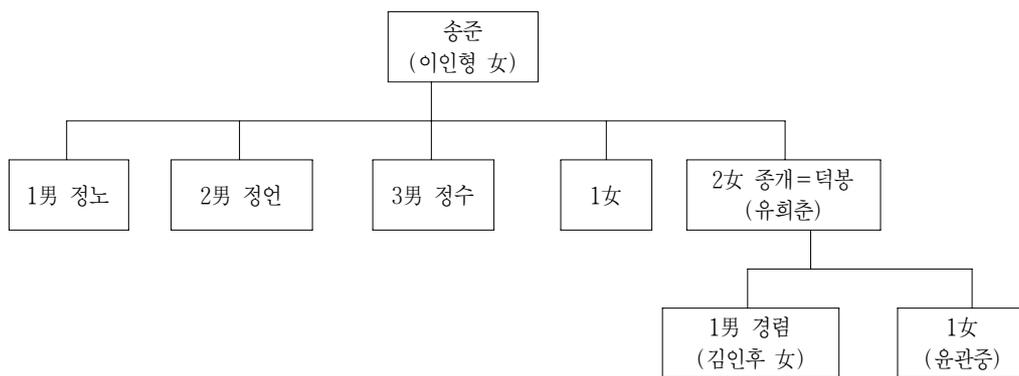
에 소명을 받잡지 않을 수 없어 덕봉과 작별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병환이 위중하여 5월 15일에 세상을 등졌다.

송덕봉은 온 몸과 온 마음을 쏟아 미암의 장례를 치루고 난 후 시름시름 앓다가, 미암 사후 7개월이 지난 1578년 1월 1일에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4.2.3 허난설헌 생애사 분석

허난설헌은 1563년 강릉에서 양천허씨 허엽과 강릉김씨 김광철의 딸 사이에서 2남 1녀로 태어났다. 사별한 첫째부인에게서 태어난 1남 2녀가 있었으니 허난설헌은 허엽의 3남 3녀 중 3녀이자 다섯째가 되는 셈이다. 이름은 초희와 옥혜, 자는 경변, 호는 난설헌과 난설제이다.

아버지 허엽으로부터 서예와 그림과 글을 배운 허난설헌은 8세의 나이로 글을 지어 신동으로 불렸다. 이에 12세 위인 둘째 오빠 허봉은 허난설헌의 재주를 아껴 허균과 함께 자신의 친구인 이달로부터 시를 제대로 배우게 했다.



〈그림 3〉 송덕봉 가족 관계도

7) 정부인: 정2품과 종2품의 종친(宗親) 및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이다.

1577년 15세가 되자 허난설헌은 안동김씨 김성립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김성립은 신혼 초부터 친구들과 함께 따로 집을 얻어 과거 공부를 하면서 자주 기생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다보니 허난설헌과 김성립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바람막이가 없는 허난설헌은 그녀의 능력을 대놓고 질시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허난설헌이 18세가 되던 1580년 2월에 경상감사로 발령이 났던 아버지가 병을 얻어 서울로 올라오다가 그만 상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또한 사랑하는 딸을 잃은 허난설헌은 다음해에 아들마저 여의게 되어, 극도로 상심하여 쇠약해진 몸속에 잉태한 생명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1583년(21세)에는 허봉이 병조판서 이이를 탄핵하다가 오히려 감산으로 유배를 갔다. 평소 허봉과 많은 교감을 하던 허난설헌은 유배를 보내는 마음을 시로 풀어내며 스스로를 달래었는데, 1588년(26세) 유배가 풀리고도 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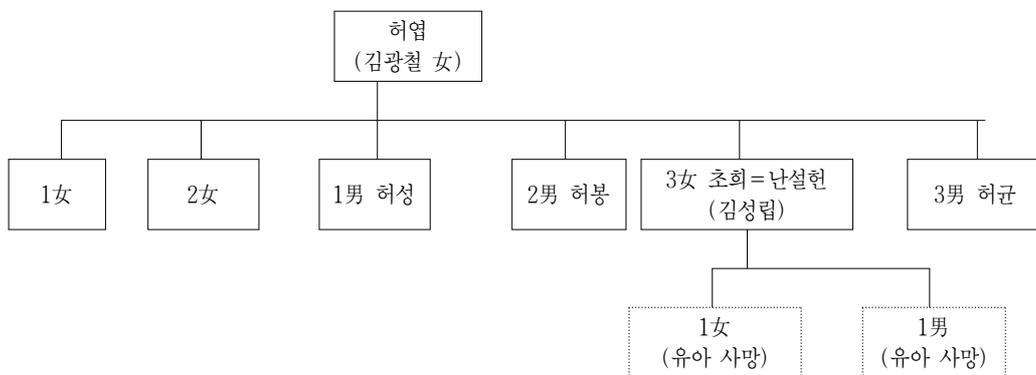
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밖으로 떠돌던 허봉은 금강산에서 객사를 했다.

1585년(23세) 봄에 외삼촌댁에 머물면서 27세에 세상을 떠나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를 지었던 허난설헌은 어린 딸과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이 세상에서 한 가닥 의지처였던 둘째 오빠 허봉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동안 버티어 내던 마음 한자락까지 모두 풀어버려, 이듬해인 1589년 3월 19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그녀의 유연으로 많은 작품은 불태워졌으며, 현존하는 『난설헌집』은 1590년 11월에 남동생 허균이 친정에 있던 시와 자신이 외우고 있던 시를 모아 엮은 시집이다.

허난설헌 사망 해에 김성립은 과거에 급제를 하였으며 두 번째 부인 홍씨와 살다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 4.2.4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생애사

신사임당(1504-1551)은 고려 풍습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시절을 살아왔기에, 능력은 뒤쳐지지만 마음이 넓은 남편 이원수와의 관계에서



<그림 4> 허난설헌 가족 관계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친정과 친정 가까운 곳에 살면서 오랫동안 친정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으며, 비록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시·서·화에 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신사임당 생후 17년 뒤에 태어난 송덕봉(1521-1578)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본받을 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 송덕봉은 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임금의 행렬을 구경하고, 부부가 함께 바둑을 두고 시를 주고받으며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손자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쏟았다. 그 당시 송덕봉의 학문과 부부지정은 살아생전 부부금슬이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좋았다.<sup>8)</sup> 물론 미암이 부드러운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지만, 송덕봉이 배운 유학의 도를 몸소 실천하는 선비이자 평생을 공부해가는 문사로서의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갔기에 부부가 평생동안 ‘지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덕봉의 거취를 살펴보면 신혼 초 친정에서 미암과 함께 보내다가, 벼슬하는 미암을 따라 옮겨 다녔다. 미암이 유배 간 20여 년 동안은 친정에서 가정을 책임지다가 해배 후 미암의 고향 해남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금방 덕봉의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와서 미암과 함께 새 집을 짓고 말년을 보냈다. 아직은 남귀여가혼이 남아 있어서 『미암일기』에는 송덕봉의 아들 유경림과 딸 그리고 손자 광선이 상황에 따라

친가와 처가 양쪽 집을 오가며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뛰어난 천재 허난설현(1563-1589)은 송덕봉 생후 52년 뒤에 출생하였다. 허난설현은 신사임당과 송덕봉처럼 자유스럽게 친정집을 오가는 못했다. 자신보다 출중한 배필을 품어 줄 품이 없는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밖으로 나돌기 마련이고, 아내로서 사랑받을 권리는 박탈당한 채 오로지 주어진 삶을 체념과 순종으로 감내하며 살아내 주기만을 강요하는 더욱 견고해진 유학의 도리는 허난설현의 상념을 더욱 부채질해 줄 뿐이었다.

비록 몸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속세를 떠나 선계에서 자유와 낭만을 만끽함으로써 그때만큼은 현실에 처한 외로움과 불행을 잊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 것도 사랑할 것이 남아 있지 않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무엇으로 마음의 허허로움을 채울 수 있던 말인가. 허난설현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을 만큼의 병도 생기지 않았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는 세상을 등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으리라.

#### 4.3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현 작품

##### 4.3.1 신사임당 작품 분석

삼절의 효시라고 불리는 신사임당은 조선 중

8) 신부집 대사헌의 부자가 함께 촛불을 켤 사람을 의논하다가 “유동지(희춘)만한 이가 없다.”라고 하여 나더러 촛불을 켜달라고 하였다. 나는 첩이 있다고 사양을 했더니, 계현이 말하기를 “그런 첩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영공의 부부간 금슬 좋기가 짝이 없으니 사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므로 따라왔다. 전일 노극신의 집에서 켤 것과 합하여 두 번째 촛불을 켜다(유희춘, 2004, 『다시읽는 미암일기』(丙子 10月 8日), 이백순 번역, 담양군).

기 식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시·서·화 삼절에 능한 여류 문인이다. 따라서 신사임당의 작품은 시와 글씨와 그림으로 분류하여 감상할 수 있다.

자작시는 온전한 시 2편과 낙구(落句)<sup>9)</sup>로 전해져 내려오는 시 1편으로 총 3편의 시가 있으며, 3편 모두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읊은 시로 신사임당의 호심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자료이다. 병풍에 남아 있는 사임당의 독자적인 글씨체와 초충도 그림은 다른 이들이 흠모할 정도로 정갈하면서도 힘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사임당은 그림을 그린 다음 그 위에 자수를 놓았는데 초충도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화합을 중요시 여긴 신사임당의 심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초충도와 함께 새겨진 글들은 유명한 당나라 시인들의 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다음 <표 4>, <표 5>는 모두 인용하여 신사임당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 4.3.2 송덕봉 작품 분석

미암의 『시장(諡狀)』을 쓴 이호민(1553-1634)에 의하면 송덕봉은 “타고난 성품이 명민하고 경전과 역사서를 섭렵하여 여사의 기풍이 있다.”<sup>10)</sup>고 했으며, 허성(1548-1612)은 송덕봉

에 대해 ‘문사 중의 문사’라는 표현을 썼다.<sup>11)</sup> 이는 송덕봉의 학문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평생 동안 글을 가까이 하고 시를 쓰던 송덕봉은 조카 송진으로부터 『덕봉집』을 선물 받는다. 미암의 부탁을 받은 송진이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송덕봉의 시와 미암이 건네 준 송덕봉의 시를 합하여 38수를 서첩으로 엮어 준 것이다. 이렇게 결혼 이전부터 시를 즐겨 썼던 습관은 『덕봉집』 이후에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시 25수와 산문 3편만이 현존하고 있다.

송덕봉의 시는 사랑과 슬픔, 고독과 선계를 노래하기 보다는 가정의 건강과 유대와 안녕을 바라는 시, 자연을 노래하거나 취중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선비의 기개가 넘치는 호방한 시 등등 철저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의 노래 곧 생활시를 남겼다.

송덕봉의 <편지글>과 <착석문>, <착석문 서>는 허난설헌의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과 이운태 부인의 <한글 편지>와 함께 현존하는 조선 여성 3대 수필문으로 알려져 있는 주옥같은 글이다. 다음 <표 6>은 현존 작품을 토대로 송덕봉의 시를 정리한 내용을 인용하여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9) 낙구(落句): 일부분만 떨어져 남은 시구이다.  
 10) 안동교. 2017. 조선의 여성작가 송덕봉의 삶과 문학 학술대회. 『2017 한국학호남진흥원 학술세미나』. 2017년 12월 15일. 광주: 전남대학교.  
 11) “부인은 영특해 특히 경학과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런 점에서 부인은 ‘여성 선비’女士라 해야 마땅하다.”고 덕봉의 재능을 기록하였다. 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신도비(神道碑)를 쓴 허성(1548~1612)은 동생 허봉과 함께 미암 유희춘이 사랑한 문인이며, 허난설헌과 허균은 그의 동생들이다(백승중. 2008.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 문제와 성리학 - 송덕봉이란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 『역사학보』 제197집. 여성학회. (허성, 『묘갈명』. 57책, 392쪽. 재인용). 박희택은 『여성선비의 덕성과 맥락』에서 여사, 여중군자, 여중학자로 덕성을 나누어 소개했다.

〈표 4〉 신사임당 작품<sup>12)</sup>

번호	작품명	작품형태	작품 형식	출처	비고
1	유대관령망친정 (踰大關嶺望親庭)	7언 절구	시	선비행장 (先妣行狀)	
2	사친(思親)	7언古诗	시	덕수이씨가승 (德水李氏家乘)	
3	사친 낙구 (思親 落句)	5언 2구	시	선비행장 (先妣行狀)	
4	당시(唐詩), 초서	5언 절구	6폭 병풍	오죽헌·강릉시립박물관	
5	당시(唐詩), 초서	5언 절구	8폭 병풍	대전시립박물관	
6	당시(唐詩), 초서	5언 율시	1폭 병풍	부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7	당시(唐詩), 초서	5언 절구 5언 율시	2폭 산수도	국립중앙박물관	
8	초충도	그림, 자수	8폭 병풍	오죽헌·강릉시립박물관	오이와 메뚜기 석죽과 풍뎅이 수박과 여치 가지와 사마귀 맨드라미와 개구리 양귀비와 풀거미 봉숭아와 방아깨비 원추리와 벌
9	초충도	그림, 자수	8폭 병풍	국립중앙박물관	수박과 들쥐 가지와 방아깨비 오이와 개구리 양귀비와 도마뱀 추규와 개구리 맨드라미와 쇠똥벌레 여뀌와 검은 잠자리 원추리와 매미
10	초충도	그림, 자수	8폭 그림	간송미술관	파리와 잠자리 수박과 개미취 맨드라미와 도라지 민들레와 땅파리 달개비와 접시꽃 포도 원추리와 패랭이 양귀비와 호랑나비
11	초충도	그림, 자수	2폭 그림	간송미술관	오이, 가지

〈표 5〉 신사임당 자작 진위 여부 미판(未判) 작품<sup>13)</sup>

번호	작품명	작품형태	작품 형식	출처	비고
1	화접도	담채	7폭	국립중앙박물관	
2	초충도		2폭	오죽헌	
3	초충도		4폭	선문대학교박물관	

12) 정옥자. 2016. 『사임당전』. (주)민음사. 조선사역사연구소. 2015. 『신사임당』. 아토티.

13) 정옥자. 2016. 위의 책.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여 신사임당의 작품이 소개된 다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표 6〉 송덕봉 작품<sup>14)</sup>

번호	작품명	작품형태	출처 『미암일기초』 『국역 덕봉집』	창작 년도	날짜	
1	우음(偶吟)	7언 절구	○	癸卯(1543) 또는 甲辰(1544)	무장 관아에서	
2	마천령상음(摩天嶺上吟)	7언 절구	○	庚申(1560)		
3	희화미암운(戲和眉巖韻)	7언 절구	○	丙寅(1566) 이후		
4	몽중시(夢中詩)	7언 2구	○	戊辰(1568)		
5	화시(和詩)	5언 절구	○	己巳(1569)	9.2일	
6	화답시(和答詩)	7언 절구	○	庚午(1570)	4월	
7	희신사(喜新舍)	7언 절구	○	辛未(1571)		
8	단오여오자회신사(端午與吳姊會 新舍)	5언 절구	○	辛未(1571)		
9	차미암운(次眉巖韻)	7언 절구	○	辛未(1571)	7월	
10	중양일족회(重陽日族會)	5언 절구	○	庚午(1570) 또는 辛未(1571)	여름	
11	취리음(醉裏吟)	5언 절구	○	辛未(1571)	여름	
12	미암승가선작(眉巖升嘉善作)	7언 절구	○	辛未(1571)	10월	
13	증시(贈詩)	7언 절구	○	壬申(1572)	11.11일	
14	차남운(次男韻)	5언 절구	○	甲戌(1574)	1월	
15	취중우음(醉中偶吟)	7언 절구	○	甲戌(1574)	3.19일	
16	차중구소작운(次重九小酌韻)	5언 절구	○	甲戌(1574)	9.9일	
17	우증미암(又贈眉巖)	7언 절구	○	乙亥(1575)	11.22일	
18	중동이십칠일영설연구(仲冬二十 七日詠雪聯句)	7언 1구	○	乙亥(1575)	11.27일	
19	을해제야(乙亥除夜)	5언 절구	○	乙亥(1575)	12.30일	
20	지락음(至樂吟)	7언 절구	○	丙子(1576)	4.5일	
21	여운서광룡소작(與尹壻光龍小酌)	5언 절구	○	庚午(1570) 또는 연대 미상	4.8일	
22	팔월십이일야즉경(八月十二日夜 卽景)	5언 절구	○	연대 미상	8.12일	
23	중동념일일영설(仲冬念一日詠雪)	7언 절구	○	연대 미상	11.21일	
24	영동당증미암(詠東堂贈眉巖)	5언 절구	○	연대 미상	11.22일	
25	증친족송진(贈親族宋震)	5언 절구				『한국여류한시선』
26	답편지(答便紙)	문(文)	○			
27	착석문(착석문)	문(文)	○	辛未(1571)	7.5일	
28	착석문서(착석문서)	문(文)	○	辛未(1571)		

14) 유희춘. 1992. 『미암일기(미암일기초)』1-5집. 담양향토문화연구회.; 송재용. 2012. 송덕봉 문학 연구. 『동아시아 고대학』, 28.; 문희순. 2012. 『국역 덕봉집』. 심미안.

### 4.3.3 허난설헌 작품 분석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여 편이 넘는 시를 썼던 허난설헌은 남동생 허균에 의해 유고시집이 발간된다. 그러다보니 찬사와 함께 표절시비 등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천재 시인이라는 말은 허울 좋게 붙은 찬사가 아니다. 허난설헌의 시는 그만큼 진지하고 사유의 폭이 넓고 깊으며 총체적이다.

둘째 오빠 허봉의 소개로 당대 최고 시인 이 달에게서 사사 받고, 결혼 후 20세에는 허봉으로부터 두보 시집 『두율』을 선물 받는다. 허난설헌은 이 책을 통해 두보의 시를 배우며 시의 세계를 더욱 넓혀간다.

허난설헌은 5언, 7언, 절구, 율시, 고시 등 형식을 넘나들며 심상을 표출한다. 폭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주제와 아름다운 시어가 형식에

맞춰 영롱하게 채워져 간다. 앞서 말한 것처럼, 허난설헌의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은 조선 여성 3대 현존 수필문이다.

다음 <표 7>은 허균이 엮은 『난설헌집』에 수록된 213수 작품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1-51번은 본문에, 52-54번은 부록에 수록된 시와 글이며, 『난설헌집』 발문이나 머리말 등은 난설헌의 작품이 아니므로 생략하였다. 55번 이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문집에 실리지 못하고 다른 책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은 전 생애를 걸쳐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출하면서 주어진 여인의 삶을 잘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또한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지닌 그들은 학문과 사상에서도 월등하여 절제된 미학으로 하나하나의 작품 속에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사려 오롯이 담아내었다.

<표 7> 허난설헌 작품<sup>15)</sup>

번호	작품명	출처		작품 형태
		난설헌집	기타	
1	소년행(少年行)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고시
2	감우 1-4(感遇 四首)	○	학산초담,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고시
3	곡자(哭子)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고시
4	건흥 1-8(遣興 八首)	○	역대여자시집, 명시종	5언 고시
5	기하곡(寄荷谷)	○	역대여자시집	5언 고시
총	15수			
6	동선요(洞仙謠)	○	역대여자시집	7언 고시
7	염지봉선화가(染指鳳仙花歌)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고시
8	망선요(望仙謠)	○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역대여자시집	7언 고시
9	상현요(湘絃謠)	○	소화시평,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역대여자시집	7언 고시
10	사시사 봄(四時詞 春)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고시
11	사시사 여름(四時詞 夏)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고시
12	사시사 가을(四時詞 秋)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고시

15) 문경현 역편, 1972, 『허난설헌 전집』, 보연각; 허미자, 2007,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김명희 역, 2013, 『허난설헌의 시문학』, 국학자료원.

번호	작품명	출처		작품 형태
		난설헌집	기타	
13	사시사 겨울(四時詞 冬)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古诗
총	8수			
14	출새곡(出塞曲 二首)	○	국조시산, 대동시선	5언 율시
15	효이의산체(効李義山體 二首)	○	국조시산, 동시정선,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율시
16	효침아지체(孝沈亞之體 二首)	○	국조시산,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율시
17	기여반(奇女件)	○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율시
18	송하곡적갑산(送荷谷謫甲山)	○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율시
총	8수			
19	춘일유회(春日有懷)	○		7언 율시
20	차중씨견성암운(次仲氏見星庵韻 二首)	○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1	숙자수관증여관(宿慈壽官贈女冠)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2	몽작(夢作)	○	증보해동시선, 동시정선,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3	차중씨고원망고대운(次仲氏高原望高臺韻 四首)	○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명시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4	송관인입도(送關人入道)	○	대동시선, 역대여자시집	7언 율시
25	제침맹균중명풍우도(題沈孟鈞中溟風雨圖)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6	황제유사천단(皇帝有事天壇)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27	차손내한북리운(次孫內翰北里韻)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율시
총	13수			
28	축성원(築城怨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29	막수악(莫愁樂 二首)	○	국조시산,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0	탐녀음(貪女吟 三首)	○	학산초담, 동시정선, 대동시선, 열조시집,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1	효취국보체(効崔國輔體 三首)	○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2	장간행(長干行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3	강남곡(江南曲 五首)	○	학산초담,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4	가객사(賈客詞 三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5	상봉행(相逢行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36	대제곡(大堤曲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5언 절구
총	24수			
36	보허사(步虛詞 二首)	○	학산초담,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37	청루곡(靑樓曲)	○		7언 절구
38	새하곡(塞下曲 五首)	○	국조시산, 대동시선,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39	입새곡(入塞曲 五首)	○	국조시산,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0	죽지사(竹枝詞 四首)	○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1	서능행(西陵行 二首)	○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2	제상행(堤上行)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3	추천사(鞦韆詞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4	궁사(宮詞 二十首)	○	소화시평, 해동시화, 국조시산, 대동시선,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5	양유지사(楊柳枝詞 五首)	○	열조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6	횡당곡(橫塘曲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7	야야곡(夜夜曲 二首)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번호	작품명	출처		작품 형태
		난설헌집	기타	
48	유선사(遊仙詞 八十七首)	○	국조시산, 대동시선 역대여자시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49	야좌(夜坐)	○	동국시화회성, 해동시화,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50	규원(闕怨 二首)	○	서애집,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51	추한(秋恨)	○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총	142수			
52	한정일첩(恨情一疊)	○		부(賦)
53	몽유광상산시서(夢遊廣桑山詩序)	○	대동시선, 동양역대여자시선	문(文)
54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	○	해동역사	문(文)
총	3편			
55	기기부강사독서(寄其夫江舍讀書)		지봉유설, 해동시화	7언 절구
56	채련곡(采蓮曲)		지봉유설, 학산초담, 시평보유, 동국시화회성, 해동시화, 동서정선, 대동기문, 동양역대여자시선	7언 절구
57	봉선화가(鳳仙花歌)			가사
58	규원가(闕怨歌)			가사
총	4편			

#### 4.3.4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 주제별 정리

개인의 삶을 담고 있는 작품은 개인이 살아온 질곡에 따라 다양한 결로 표출되기 때문에 몇 개의 주제를 정하여 그 속에 짜 맞춰 넣을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작품을 ‘사람’, ‘생활’, ‘자연’, ‘이념’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부부와 직계 및 방계 그리고 친지 등을 ‘사람’으로, 의식주와 관혼상제와 사물 등은 ‘생활’로, 자연을 표현한 작품은 ‘자연’이라는 주제로 정리하였으며, 그들의 의식과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작품은 ‘이념’이라는 개념으로 대표성을 세웠다. 주제가 다양한 글은 그중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한 주제에 포함시켰다. 일례로 자연을 노래하지만 일반적인 외로운 여인의 모습을 그린 시는 ‘생활’로, 허난설헌 자신이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는 ‘사람’에게 포함했다.

## 5. 작품 · 주제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

### 5.1 콘텐츠와 구성(안)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 · 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는 해설 콘텐츠와 기록 콘텐츠로 구분하여 설계하였다. 해설 콘텐츠에는 각각의 인물을 소개하는 글과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신고, 기록 소장처별 현황과 주요 기록 유형을 담았다. 기록 콘텐츠는 해설 콘텐츠를 좀 더 구체화하여 인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및 소장처 검색 기능을 제시해 주었다(〈그림 5〉 참조).

개인 인물 소개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개인의 간략한 생애사 및 가족 관계도를 나타낸 〈그림 2〉,

〈표 8〉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 주제별 정리

인물	작품 명 및 주제				비고
	사람	생활	자연	이념	
신사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대관령망친정</li> <li>• 사친</li> <li>• 사친 낙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충도 병풍 3점</li> <li>• 초충도 그림 1점</li> <li>• 산수도 2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씨 병풍 3점</li> </ul>	
총	3		6	3	9
송덕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석문</li> <li>• 화답시</li> <li>• 중앙일족회</li> <li>• 차남운</li> <li>• 차증주소작운</li> <li>• 여운서광룡소작</li> <li>• 영동당증미암</li> <li>• 증친죽송진</li> <li>• 회화미암운</li> <li>• 화시</li> <li>• 차미암운</li> <li>• 미암승가선작</li> <li>• 증시(증미암)</li> <li>• 차지락음</li> <li>• 중동년일일영설</li> <li>• 우증미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답편지</li> <li>• 착석문서</li> <li>• 단오여오자회신사</li> <li>• 을해제야</li> <li>• 희신사</li> <li>• 취중우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즉경</li> <li>• 우음</li> <li>• 몽중시</li> <li>• 중동이십칠일영설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리음</li> <li>• 마천령상음</li> </ul>	
총	16	6	4	2	28
허난설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행</li> <li>• 곡자</li> <li>• 견훤</li> <li>• 기하곡</li> <li>• 동선요</li> <li>• 상현요</li> <li>• 효이의산체</li> <li>• 기여반</li> <li>• 송하곡적갑산</li> <li>• 춘하유회</li> <li>• 숙자수관증여관</li> <li>• 송관인입도</li> <li>• 모수악</li> <li>• 효최국보체</li> <li>• 장간행</li> <li>• 강남곡</li> <li>• 상봉행</li> <li>• 죽지사</li> <li>• 양유지사</li> <li>• 규원</li> <li>• 추한</li> <li>• 한정일첩</li> <li>• 기기부강사독서</li> <li>• 규원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지봉선화가</li> <li>• 출새곡</li> <li>• 차중시고원망고대운</li> <li>• 황제유사천단</li> <li>• 축성원</li> <li>• 탐녀음</li> <li>• 가객사</li> <li>• 대제곡</li> <li>• 청루곡</li> <li>• 새하곡</li> <li>• 입새곡</li> <li>• 서능행</li> <li>• 제상행</li> <li>• 궁사</li> <li>• 횡당곡</li> <li>• 야야곡</li> <li>• 야좌</li> <li>• 체련곡</li> <li>• 봉선화가</li> <li>• 광한전백옥루상량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시사 춘</li> <li>• 사시사 하</li> <li>• 사시사 추</li> <li>• 사시사 동</li> <li>• 효첩아지체</li> <li>• 차중씨견성암운</li> <li>• 제침맹균중명풍우도</li> <li>• 보허사</li> <li>• 몽유광상산시</li> <li>• 몽유광상산시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우</li> <li>• 망선요</li> <li>• 몽작</li> <li>• 유선사</li> </ul>	
총	24	20	10	4	58

신사임당(송덕봉, 허난설헌) 아카이브				
해설 콘텐츠		기록 콘텐츠		
인물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 개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사</li> <li>가족 관계도</li> </ul> </li> <li>기록 콘텐츠 연결 지점 표시</li> </ul>	링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 개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작품 이미지 활용</li> <li>박물관 소장 이미지 활용</li> </ul> </li> <li>생애사 제시</li> <li>가족 관계도 제시</li> <li>✓ 기록처별 연결지점 표시</li> <li>✓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li> </ul>	기록 소장처로 연결
작품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소개</li> <li>작품 주제별 분류 배경 설명</li> <li>작가의 가치관 및 내면세계 소개</li> </ul>	링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주제별 세부 영역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정리표 제시</li> <li>작품 주제별 정리표 제시</li> <li>개인 작품 제시</li> <li>사람 관련 작품</li> <li>생활 관련 작품</li> <li>자연 관련 작품</li> <li>이념 관련 작품</li> <li>✓ 기록별 연결 지점 표시</li> <li>✓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li> </ul> </li> </ul>	기록 면으로 연결
기록 소장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장처별 집합적 기술</li> <li>소장 현황 제시</li> </ul>	링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장처 검색 기능 제시</li> <li>✓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li> </ul>	
주요 기록 유형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 유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행본</li> <li>글씨 자료</li> <li>그림 자료</li> <li>인터넷 자료</li> </ul> </li> </ul>	링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형별 기록 제시</li> <li>✓ 참고정보원 목차정보 제공</li> <li>✓ 해설 콘텐츠 연결 지점 표시</li> </ul>	

〈그림 5〉 신사임당(송덕봉, 허난설헌) 개인 아카이브 전체 콘텐츠 구성(안)

〈그림 3〉, 〈그림 4〉를 함께 제시해주고, 관련 작품 기록 콘텐츠로 넘어가는 링크 연결 지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해 준다.

인물 개괄시 개인의 이미지 사진과 개인의 어린 시절의 생활거주지인 친정과 결혼 후 생활터였던 집, 묘, 기념박물관 등 유적지 사진을 함께 보여주고 해당 내용에 연계되도록 참고정보원의 목차 정보를 같이 제시한다.

작품 현황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의 작품 목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 4〉에서 〈표 7〉까지 제시해 주고, 주제별로 분류한 개인 작품들을 정리한 〈표 8〉에 하이퍼링크로 각 영역별 작품을 찾아갈 수 있는 연결 지점을 표시해 준다.

작품 기록 소장처별 영역에서는 먼저 집합적으로 소장처를 보여주고,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소장처별 소장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목차정보를 제공해준다. 1차 자료 외에 개인과 관련된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 목록 등을 수집한 정보는 주요 기록 유형 별에서 보여준다.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인물 아카이브는 개인별로 링크되어 연계됨과 동시에 세 문인 서로 상호 연계되어 비교해볼 수 있는 구조를 택하였다.

다음 <그림 6>은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전체 콘텐츠 구성(안)으로, 각 개인은 <그림 5>의 개인 아카이브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즉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인물 아카이브는 개인별로 링크되어 연계됨과 동시에 세 명의 문인이 서로 상호 연계되어 비교해볼 수 있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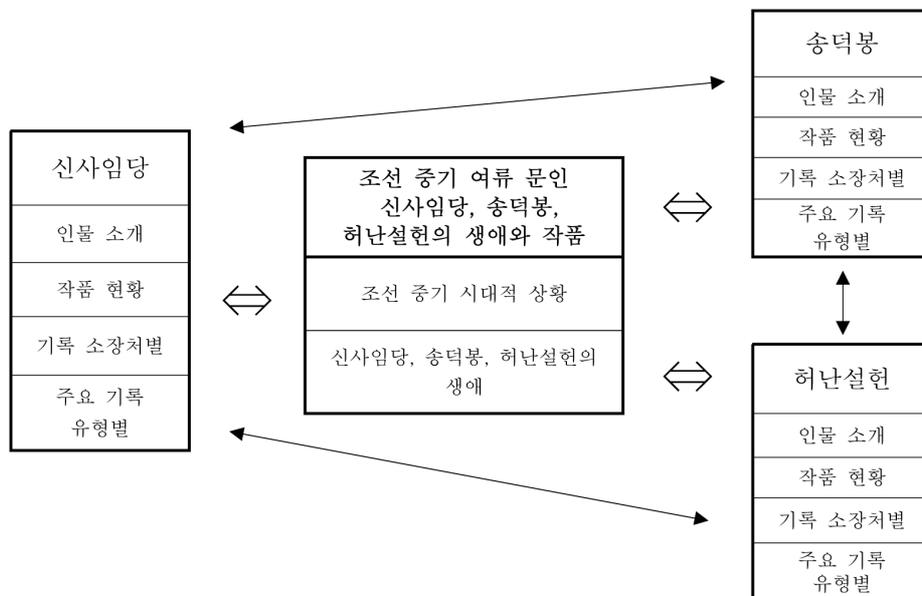
아울러 조선 중기 시대적 상황을 설명한 다음,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시대적 상황과 비교하여 생애를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세 문인의 개인별 아카이브를 연계하여

인물의 개인 기록 및 작품을 서로 링크 시켜 보여준다. 이로써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구성을 통해 목적했던 기대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 5.2 기대효과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작품·주제형 디지털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이 생산한 작품을 통해 그들의 생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은 의미가 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그들과 동 시대에 살면서 그들처럼 작품 활동을 했던 송 덕봉과 연계하는 일은 더욱 풍성한 여성 인물



<그림 6>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아카이브 전체 콘텐츠 구성(안)

을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애와 삶의 대처 방식에서 이용자들은 개인적인 롤 모델을 찾음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 여성 인물로 국내·외에 소개시킬 수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조선 중기는 성리학이 성행해짐에 따라 점점 사랑방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삼중지덕과 칠거지악으로 대표되면서 현재까지 질기게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토착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살아낸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개인의 삶에 투영된 시대적·역사적·사회적 변화를 통해 그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성리학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혼인의 풍습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셋째, 여성 개인의 삶을 옥죄어 오는 시절에 평범을 넘어선 비범한 여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의 삶을 일구어가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작품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갔는지를 배워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한 다음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해 가려는 용기와 힘을 갖을 수 있게 된다.

넷째, 기존의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각기 다른 부부관계를 통해, 개개인이 가족을 형성하여 살아가는 동안은 올바른 부부상을 정립하여 부부가 함께 긍정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닦고 싶은 모델링 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대부분의 인물 아카이브 연구가 생애사 중심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임을 감안할 때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같은 개인 아카이브 콘텐츠

와 구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 끼리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인물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6.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대상으로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콘텐츠와 그 구성방안을 수립하였고, 구성된 인물 아카이브는 서로 연계하여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비교하여봄으로써 조선 중기 역사적·시대적 배경 및 현실적인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의 콘텐츠와 구성을 위한 방안이다.

첫째, 인물의 선정배경과 이유를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이 지니는 가치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개인의 생애사를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생애사는 개인의 작품 생산연도와 주제 및 개인의 이념이 변해가는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구축시 작품 분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송덕봉의 작품은 『미암일기』 부록에 수록되어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작품 생산 연도 및 날짜를 알 수 있어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마음의 생각을 조금은 읽어낼 수 있는데 반해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은 작품만이 남아 있어 그들의 사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방면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이 글에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생애를 크게 결혼 전, 후로 나누어 부

부관계를 살피면서 그에 따른 개인의 심경의 변화와 작품과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어서 정확한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개인의 작품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작성한 기록의 분류 및 배치를 다시 정하여 전체 콘텐츠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콘텐츠는 해설과 기록 콘텐츠로 구분한 다음, 작품 현황에서는 사람, 생활, 자연, 이념 영역으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끼리 개인별, 개인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작품 기록 소장처별 영역은 먼저 집합적으로 소장처를 보여주고, 작품이 보관되어 있는 소장처별 소장 현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목차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아울러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세 인물의 개인 기록 및 작품을 서로 링크 시켜 보여주었다.

새로 구성된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는 한 명의 여류 문인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와 동시대에 생존했던 두 여류 문인의 삶을 덩으로 만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조선 중기 시대적·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의 사회적 배경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와 더불어 올바른 부부관계 모델을 제시해 줄 것이며, 그 당시 시대를 주도했던 학문(성리학)의 폐해와 인간의 삶과의 관계도 조명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을 억압했던 조선의 사회적, 정치적 이념 아래에서 그들이 남긴 작품 속에 묻어난 가치관과 삶의 지향성을 통해 양반가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항변하며 여성의 삶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낸

그들의 삶의 궤적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에게 귀감이 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멘토가 되는 롤 모델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구성 방안은 개인과 개인을 연계한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인물 아카이브 연구가 생애사 중심 인물 아카이브 구축 방안이며 개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감안할 때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작품·주제형 인물 아카이브 구성은 개인 아카이브 구축뿐만 아니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 끼리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끼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일반인의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경우 관련이 있는 개인들을 모아 그들의 작품, 일기, 사적 기록, 사진, 구술 등으로 폭넓게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개개인이 처한 삶의 유형과 방식과 형태가 달라 표준 프로세스를 설정하기 어려운 인물 아카이브를, 조선 중기라는 시대적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을 작품·주제형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로 구성된 다음 개인별, 개인간 상호 연계하여 보여주는 시도를 해 보았다.

물론 이 아카이브를 사용함에 있어 필자의 의도대로 매끄럽게 자료가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글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은 이후 이용자가 더욱 편하고 쉽게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동시대 인물인 이매창, 이옥봉, 황진이를 함께 담을 수 있는 인물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방안을 세

울 때, 그리고 공통분모를 지닌 인물들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쉽게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인물 아카이브를 설계할 때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金甲起. 1977. 許蘭雪軒의 文學과 人生. 『연구논집』, 7: 69-84.
- [2] 김경래. 2018. <서평> '만들어진 신사임당' 만들기(이숙인, 『신사임당 - 화가로 살고 어머니로 기억된 여인』, 문학동네, 2017). 『인문과학연구』, 26: 183-188.
- [3] 김경미. 2002. 조선 여성의 또 다른 삶 - 송덕봉. 『여성이론』, 7: 290-304.
- [4] 김길태. 2017. 『김대건 신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5] 김명희. 1999.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의 모성성 연구. 『論文集』, 33: 69-88.
- [6] 김명희. 2013. 『허난설헌의 시문학』. 서울: 국학자료원.
- [7] 金榮洙. 1985. 女流文學 研究의 몇가지 檢討: 許蘭雪軒을 中心으로. 『國文學論集』, 12: 75-113.
- [8] 김은경. 2006.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7-48.
- [9] 김현미. 2017. 조선시대, '여성작가' 형상 만들기: 18세기 연행록, 19세기 백과전서 속의 난설헌 직조(織造). 『이화어문논집』, 43: 203-219.
- [10] 김혜림. 2010. 『개인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연구: 이승만 기록 통합 검색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11] 담양군 문화원. 2013. 『문화원형대계, 담양의 마을 이야기』.
- [12] 문경현 역편. 1972. 『난설헌전집』. 서울: 보연각.
- [13] 문희순. 2011. 16세기 여성지식인 德峯 宋鍾介 문학의 특징과 의의. 『역사학연구』, 44: 165-198.
- [14] 민지은. 2015. 『지역 역사인물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15] 박선희. 2013. 『디지털 인물 아카이브 설계 방안 연구 - 부산대학교 초대총장 윤인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 [16] 박세영. 2012. 『조선 중기 여성상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 [17] 박영숙. 2016. 『조선시대 여성리더십에 관한 생활문화적 조명: 여성문인과 실학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 [18] 박혜숙. 2008. 『허난설헌: 허난설헌 평전』. 건국대학교 출판부.
- [19] 박희택. 2015. 여성 선비의 덕성과 맥락. 『퇴계학과 유교문화』, 56: 83-126.

- [20] 백승중. 2008. 16세기 조선사회의 젠더 문제와 성리학. 『역사학보』, 197: 1-29.
- [21] 손인수. 1986. 신사임당,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 완전한 여성. 『광장』, 160: 190-198.
- [22] 송덕봉. 2012. 『국역 덕봉집』. 문희순, 안동교, 오석환 공역. 광주: 심미안.
- [23] 宋宰鏞. 2012. 宋德峯 文學 研究. 『동아시아고대학』, 28: 31-66.
- [24] 송재용. 2008. 『조선시대 선비 이야기, 미암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보다』. 서울: 제이앤씨.
- [25] 송윤선. 조선사역사연구소. 2016. 『신사임당 뜻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다』. 고양: 아토북.
- [26] 유정은. 2016. 『사임당평전: 스스로 빛났던 예술가』. 서울: 리베르.
- [27] 유현숙. 2011. 『신사임당의 효사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산대학교 대학원 효학전공.
- [28] 유희춘. 2004. 『다시 읽는 미암일기』. 1~5권. 이백순 번역. 담양군.
- [29] 윤금순. 2014. 『여성작가 4인의 삶과 예술에 대한 고찰: 페미니즘적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 [30] 윤정훈. 2012. 『스토리텔링을 위한 스토리 자원 아카이브즈 구축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31] 이동하. 2003.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삶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 『한국현대문학연구』, 13: 101-126.
- [32] 이성임. 2012. 16세기 송덕봉의 삶과 성리학적 지향. 『역사학연구』, 45: 99-126.
- [33] 이숙인. 2014. 허난설헌: 동인(東人)의 누이, 소문을 타다. 『내일을 내는 역사』, 55: 209-226.
- [34] 이숙희. 1987. 『허난설헌의 시론』. 새문사.
- [35] 이연수. 2004. 기억하라! 시대를 앞서간 여성들의 목소리. 『가톨릭평론』, 12: 132-139.
- [36] 이연순. 2009. 『眉巖 柳希春의 日記文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전공.
- [37] 이은화. 2009. 『아카이브즈 개인 기록 컬렉션 관리에 관한 연구: 배민수 컬렉션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38] 이종범. 2011. 조선전기 담양 대곡 송씨가의 성장과 관계망. 『호남문화연구』, 50: 235-272.
- [39] 임진희. 2013. 개인아카이브 & 개인 디지털아카이빙의 특성과 과제. 제33회 명지대 실버랩 콜로키움.
- [40] 전경원. 1993. 여성영재: 수퍼우먼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콤플렉스. 『영재교육연구』, 2(1): 195-211.
- [41] 鄭文教. 1994. 申師任堂은 누구인가. 『울곡학연구』, 1: 537-552.
- [42] 정옥자. 2016. 『사임당전』. 서울: (주) 민음사.
- [43] 鄭在薰. 1993.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남명학연구』, 3: 69-77.
- [44] 정창권. 2003. 16세기 여성시인 송덕봉 작품집. 『여성문학연구』, 9: 277-302.
- [45] 정창권. 2002. 미암일기에 나타난 송덕봉의 일상생활과 창작활동. 『어문학』, 78: 543-562.
- [46] 정창권, 유희춘. 2003.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파주: 사계절.
- [47] 최문희. 2011. 『난설헌: 최문희 장편소설』. 서울: 다산책방.

- [48] 최영주. 2005. 『대학기록관의 개인기록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49] 최유미. 2010. 결핍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식: 허난설헌의 한시(漢詩)와 김혜순의 시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24: 165-201.
- [50] 한성금. 2015. 16세기 사족녀의 한시에 나타난 사유와 표현양상: 송덕봉과 허난설헌 한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95: 289-312.
- [51] 허미자. 2007. 『허난설헌』.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Gap-Gi. 1977. "Heo Nanseolheon's Literature and Life." *Journal of the Graduate School*, 7: 69-84.
- [2] Kim, Kyung-Rae. 2018. "<a book notice> 'Making 'Created Shin Saimdang' (Lee, Sook-In, Shin Saimdang - a woman who lived as a painter and remembered as a nanny, Munhakdongne, 2017)." *Journal of Humanities*, 26: 183-188.
- [3] Kim, Kyung-Mi. 2002. "Another Life of Korean Women - Song Deokbong." *Journal of feminist theories and practices*, 7: 290-304.
- [4] Kim, Kil-Tae. 2017.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Father Andrew Kim Taegon Digital Archives*. M.A. thesis, Dept. of Archive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 [5] Kim, Myung-Hee. 1999. A Study on the Motherhood of Heo Nanseolheon and Shin Saimdang. *A Research Papers*, 33: 69-88.
- [6] Kim, Myung-Hee. 2013. *The Poetics of Heo Nanseolheon*. Seoul: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 [7] Kim, Young-Soo. 1985. "Some Reviews on the Study of Women's Literature." *A Research Papers on Korean Literature*, 12: 75-113.
- [8] Kim, Eun-Kyung. 2006. "After Korean War, 'Tradition' in the Process of the Reconstruction and Women." *Journal of Asian Women*, 45(2): 7-48.
- [9] Kim, Hyun-Mi. 2017. "Making the Shape of 'Women Writer' in the Joseon Dynasty: the 18th-century annals, the rough construction of Nanseolheon an Encyclopedia in the 19th Century." *A Research Papers on the Korean Language*, 43: 203-219.
- [10] Kim, Hye-Lim. 2010.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Personal Archives*. M.A. thesis, Dept.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11] Damyang County Cultural Center. 2013. *Cultural Circle System, the Story of Damyang Village*.
- [12] Moon, Kyung-Hyun trans. ed. 1972. *The Collected Works Nansolheon*. Seoul: Boyeongwak.
- [13] Moon, Hee-Soon. 2011.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Literature of Dukbong Song-Jong Gae, A Woman Intellectual in the 16th. Century." *The study of history*, 44: 165-198.
- [14] Min, Ji-Eun. 2015. *A Study on Establishing an Archive of Local Historical Figures*. M.A. thesis,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 [15] Park, Sun-Hee. 2013.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Personal Digital Archives: Case Study of In-gu, Yoon as the first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16] Park, Se-Young. 2012. *A study of the change of social perception about women in the mid chosun*. M.A. thesis,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 [17] Park, Young-Sook. 2016. *Analysis on women's leadership during Chosun dynasty in perspective of living culture: focusing on women writers and silhak scholars*. Ph.D dissertation,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 [18] Park, Hye-Sook. 2008. *Heo Nanseolheon: A Critical Biography of Heo Nanseolheon*. Konkuk University Press.
- [19] Park, Hee-Taek. 2015. "The Virtues and Genealogy of Woman Scholars." *Toegye Studies and Korean Culture*, 56: 83-126.
- [20] Paik, Sung-Jong. 2008. "Gender Problematic of the 16th Century in the Neo-Confucian Korean Society."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197: 1-29.
- [21] Son, In-Soo. 1986. "Shin Saimdang, Good Wife, Good Mother, Complete Woman." *Forum*, 160: 190-198.
- [22] Song, Duk-Bong. 2012. *Deokbong-Jip of Korean Translation*. joint translated by Moon, Hee-Soon, An, Dong-Gyuo, & Oh, Suk-Hwan. Gwangju: Shimmian.
- [23] Song, Jae-Yong. 2012. "A Study on the Literature of Song Deok-bong. *DONG ASIA KODAEHAK: The East Asian Ancient Studies*, 28: 31-66.
- [24] Song, Jae-Yong. 2008. *Look at the past and present through the story of Seonbi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Miam diary*. Seoul: JENC.
- [25] Song, Yoon-Sun & Joseon Historical Research Institute. 2016. *Paint a picture with the will of a Shin Saimdang*. Goyang: Atobook.
- [26] Yoo, Jung-Eun. 2016. *A Critical Biography of Saimdang: an artist who shone on himself*.

- Seoul: Liber.
- [27] Yoo, Hyun-Sook, 2011. *A study on the Hyo thought of Shin Saimdang*. Ph.D. dissertation, Dept. of Filial Piety, Graduate School of Seongsanhyo University.
- [28] Yoo, Hee-Choon, 2004. *A Rereading Miam Dairy, Vol.1-5*. translated by Lee, Baek-Soon. Jeonnam: Damyang County.
- [29] Yoon, Keum-Soon, 2014. *The lives of the four female artistis and study of art: focusing on feministic research*. M.A. thesis,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30] Yun, Jeong-Hun, 2012. *Study on Establishment of Story Resource Archives for Storytelling*. M.A. thesis, Major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31] Lee, Dong-Ha, 2003. "Fictionalization of the Noble Women's Life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13: 101-126.
- [32] Lee, Sung-Im, 2012. "Life Figure and Neo-Confucianism direction of Song Duk-Bong in the 16th Century." *The study of history*, 45: 99-126.
- [33] Lee, Sook-In, 2014. "Heo Nanseolheon: Dongin's(東人) sister, take the rumor." *Tomorrow's History*, 55: 209-226.
- [34] Lee, Sook-Hee, 1987. *The Poet of Heo Nanseolheon*. Seoul: Saimunsa.
- [35] Lee, Yeon-Soo, 2004. "Remember! The voices of women ahead of their time." *Catholicism*, 12: 132-139.
- [36] Lee, Yeon-Soon, 2009. *A Study on Jounal Literature of Mi-Am Yu Hi-Chun*. Ph.D dissert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 [37] Lee, Eun-Hwa, 2009. *A Study on Personal Record Collections at Archives - Analysis of Bae Min Su Collection*. M.A. thesis,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Track,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 [38] Lee, Jong-Bum, 2011. "The Expansion and Networks of The Song's Family in Damyang Daegok during the First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Honam Studies*, 50: 235-272.
- [39] Lim, Jin-Hee, 2013.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Personal Archiving & Personal Digital Archiving*. The 33rd Silver Lab Colocium in Myongji University.
- [40] Jeon, Kyung-Won, 1993. "Female prodigy: Superwoman Shin Saimdang and Heo Nansulheon Complex."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1): 195-211.
- [41] Jeong, Mun-Gyo, 1994. "Who is the Shin Saimdang?" *Yulgok Studies*, 1: 537-552.

- [42] Jung, Ok-Ja. 2016. *Biography of Shin Saimdang*. Seoul: Minumsa.
- [43] Jung, Jae-Hoon. 1993. "The Life and Study of Miam Yoo Hee-chun." *Nammyung Studies*, 3: 69-77.
- [44] Jung, Chang-Kwon. 2003. "A collection of works by Song Deok-bong, a 16th-century female poet."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9: 277-302.
- [45] Jung, Chang-Kwon. 2002. "Song, Deuk-Bong's Daily Routine and Creative Activity on the Me-Am Ilki."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78: 543-562.
- [46] Jung, Chang-Kwon and Yoo, Hee-Choon. 2003. *I will think of you alone*. Paju: Four seasons.
- [47] Choi, Moon-Hee. 2011. *Nan Sul-heon: Choi Moon-hee's Featured Novel*. Seoul: Dasan Bookstore.
- [48] Choi, Young-Ju. 2005. *A Study of the documentation of Personal document in a university archives*. M.A. thesis, Dept. of Archiv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Archives Science, Myoungji University.
- [49] Choi, You-Mi. 2010. "Two Ways to Overcome Deficiency - Focused on the Heo Nan Seol Hun's Chinese Poems and Kim Hye Soon's Poems." *Onji Research Paper*, 24: 165-201.
- [50] Han, Seong-Geum. 2015. "Speculation on Chinese Poetry Written by Women from Noble Families in the 16th Century and the Expressive Aspects Used - Chinese Poetry by Song Duk-Bong and Heo Nanseolhun." *Korean Literature*, 95: 289-312.
- [51] Heo, Mi-Ja. 2007. *Huh Nanseolhun*.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ess.